

# 작년 광주·전남 역대 가장 더웠다

## ●광주기상청 '2024년 연 기후 분석'

연평균기온 15.9도...중전 1위 2023년비 0.9도 ↑

8월보다 2월 강수량 많아...기상청 "처음 있는 일"

지난해 광주·전남이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연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연평균기온은 평년(13.9도)보다 2도 높은 15.9도로 측정됐다. 이는 종전 1위였던 2023년 15도보다도 0.9도 높아 최고 기록 경신으로 이어졌다.

월평균기온 역시 모두 평년보다 높았는데, 2·4·6·8·9·10월의 경우 역대 1위로 확인됐다.

특히 여름철 무더위가 이례적으로 초가을까지 이어지면서 9월 기온은 평년대비 편차가 4.4도로 가장 컸다.

지난해 광주·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온을 높인 주요 기후학적 요인으

론 높은 해수면 온도와 티베트·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이 꼽혔다.

해수면 온도가 연중 평년보다 높아 해상으로 유입되는 공기 역시 뜨거워졌고 여름철 우리나라 주변 따뜻한 해상 위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 티베트 고기압도 해수면 온도가 높은 북인도양에서 커져 우리나라까지 확장되는 등 영향을 미쳤다.

연강수량은 평년보다 약간 많은 1천497.5mm였으나, 강수 형태가 달랐다.

통상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2월 강수량이 평년(43.7mm)의 3배 가까이 되는 128.8mm였고, 많이 오는 8월은 평년(267mm) 대비 28.2% 수준의 75.2mm만 내리는

등 역대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다.

이처럼 8월보다 2월 강수량이 많은 것에 대해 광주지방기상청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된 1973년 이후 처음"이라며 "8월은 티베트·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을 동시에 덮어 비가 적게 내렸고, 2월에는 우리나라 동쪽에서 발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다습한 남풍이 불어 비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703.4mm) 대비 77% 수준인 541.8mm로 적었지만, 이 중 79.9%(433mm)가 장마철에 집중됐다"며 "1973년 이래 가장 큰 비율"이라고 부연했다. /안재영기자

### 오늘의 날씨

☀ 해돋이 07:41 해질 17:39  
🌙 달뜨기 13:54 달지기 03:56

인천	서울	춘천	강릉
-11/-2	-12/-2	-19/-4	-8/3
대전	전주	대구	독도
-12/0	-10/0	-12/1	-3/2
목포	광주	부산	
-5/2	-10/0	-9/3	
흑산도	제주	여수	
-6/2	1/5	-7/3	

광주	눈	-10/0
목포	눈 또는 비	-5/2
여수	구름조금	-7/3
나주	눈	-11/1
완도	구름조금	-5/3
구례	구름조금	-11/1
강진	눈 또는 비	-8/2
해남	눈 또는 비	-7/3
장성	눈	-11/-1
보성	구름조금	-11/1
순천	구름조금	-10/2
영광	눈 또는 비	-8/0
진도	눈 또는 비	-4/3
흑산도	눈 또는 비	-6/2
고흥	구름조금	-9/3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30 🧺 빨래 30 🚗 세차 20 🏃 운동 30

감기 조심해요 실내 건조 좋아요 세차는 다음으로 실내운동 즐겨요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1.5-3.5	1.0-2.5
남부	면바다(북) 2.0-4.0	1.5-3.5
	면바다(남) 2.0-4.0	1.5-3.5
남해	앞바다 1.0-2.0	1.0-2.0
	면바다(동) 2.0-4.0	1.5-3.5
서부	면바다(서) 2.0-4.0	1.5-3.5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목포	11:01	03:32
	23:01	16:40
여수	06:17	12:28
	18:24	--:--
녹동	07:04	00:22
	18:59	13:41

●전국 날씨

날짜	광주	서울	강릉	대구	제주
1월 11일(토)	☁ (-5/2)	☁ (-8/1)	☁ (-5/5)	☁ (-7/4)	☁ (4/7)
12월 12일(일)	☁ (-2/4)	☁ (-6/2)	☁ (-5/5)	☁ (-4/5)	☁ (4/8)
13일(월)	☁ (-2/6)	☁ (-6/4)	☁ (-3/5)	☁ (-5/7)	☁ (4/10)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 전남학숙, 입사생 163명 모집

11월 13일까지

전남도는 9일 "2025년 도립 전남학숙 신규 입사생 총 163명(남 91명·여 72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광주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졸업 후 2년 이내인 졸업생이다. 8월 기준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오는 2월 13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입사생은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과 1일 9회 운행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양시원기자



"추위엔 모닥불이 최고"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연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재래시장 한켠에서 상인들이 모닥불을 피며 잠시 추위를 피하고 있다. /김영근기자

# 호남권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최다

교통안전공 광주전남·전북본부 지난해 적발 1천215건 중 827건

지난해 호남권 고속도로를 달린 화물차의 불법행위 중 '안전기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2·11월 전북본부와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천21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호남권(광주·전

남, 전북) 화물차 연도별 사망자가 2022년 109명에서 2023년 126명으로 15.6% 증가함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고속도로 주요지점 중 33개소에서 기회 합동단속을 벌여 과적을 위한 물품 적재장치 불법 개조, 적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적재 불량 등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기준 827건(광주 168·전남·413·전북 246) ▲불법튜닝 242건(광주 52·전남 112·전북 78) ▲변호환 58건(광주 17·전남 21·전북 20) ▲적재불량 43건(광주 9·전남 20·전북 14) ▲미수검 35건(광주 15·전남 16·전북 4) ▲대표차 5건(전남 1·전북 4) ▲기타 5건 등으로 이 중 안전기준 위반이 전체 적발 건 중 68%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화물운송사를 방문해 '안전조치 유도 및 적재불량 근절

도'를 실시하고, 자동차검사 미 실시 차량 안전관리 강화 등 화물차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호남권 고속도로 내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2023년 68건에서 2024년 61건으로 10.3%(7건) 감소했으며, 사망도 2023년 7건에서 2024년 5건으로 28.6%(2건) 줄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합동 단속이 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개선하는 등 사고 감소 효과(Halo effect)로 나타나고 있다"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 市·道교육청,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행안부 실시... "알 권리 충족에 더욱 힘쓸 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을, 2024년 평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활성화 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총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각 기관은 평

가 결과에 따라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등의 등급을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평가 분야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는 준수율이 99.9%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교육청은 5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특히 사전정보공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원문공개율 88.7%로 1위를 기록했다. /김다이어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상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섬진강 맑은물이 길러낸 우리 농산물이 가득한 곳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목과시장, 석곡시장

◎장이 서는 날◎

- 섬진강기차마을전통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 목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석곡시장 : 매월 5일, 10일로 끝나는 날 (31일이 말일인 경우 31일)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곡성군

문의 : 062)650-2099